

‘완도 해양박물관·고흥 국도·화순 폐광’ 예타 통과

기재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委内·의결

K-수산업에 다들 완도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이 오는 2030년 들어선다.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고흥-봉래 국도 15선 확장사업’,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으면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완도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건립사업,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국내 첫 ‘수산업’을 주제로 한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건립은 전남도가 우리나라에 수산 분야 특화 박물관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해 2019년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 2022년 완도 정해진 유적지를 입지로 선정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4년 기재부 예타 조사대상 선정, 지난 8일 정책효과와 균형발전 효과 등 발표와 질의응답에 적극 대응한 결과, 7년 만에 결실을 봤다.

박물관은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비 1천138억원을 들여 부지 4만 6천886㎡, 연면적 1만4천414㎡ 규모로 조성된다.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전시할 계획이다.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하는 국도 15호선은 총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게 됐다. 고흥군의 핵심 미래전략산업인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중요도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로 고흥군과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앞당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당초 5천142억원에서 1천379억원 증액된 총 6천521억원이 반영됐다. 개통 시점은 2035년으로 계획됐다. 완공 시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60분에서 20분으로 40분 단축된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접근성이 높아져 민간 기업 입지 여건은 물론 관광객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Today

폭염 속 삶의 현장·‘냉방의 자유’ 6면

남도인물열전-동방 18현 ‘하서 김인후’ 14면

KIA 마운트 필승카드는 특급 ‘슬라이더’ 16면

완도...연면적 1만4천㎡ 규모 2030년 개관

고흥...31.7km 4차로 확장, 우주산업 탄력

화순...3천500억 투입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국도 15호선 확장은 2009년부터 건의한 지역민 숙원사업이지만, 지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 예타에서 무산됐다.

이에 전남도와 고흥군은 고흥 봉래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 지정(2022년), 민간발사체·발사체 기술산업센터 예타 면제(2023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2024년) 등 국가 핵심전략산업 유치 성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예타 통과를 이끌어냈다.

2023년 문을 닫은 화순 폐광에는 농공단지와 스마트팜단지 등 대체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화순 폐광지역은 과거 광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었으나 조기 폐광으로 산업 기반역할이 점차 축소됐다. 현재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가 심화로 대체산업 발굴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진흥개발사업은 2031년까지 국비 700억원을 포함, 총 3천 579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 의료·식품 등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화순군 자체 용역 결과, 사업 완료 시 고용유발효과 5천602명, 취업유발효과 7천804명, 생산유발효과 131천709억원 등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화순탄광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국립탄광박물관건립 건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200만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해양수산강국의 위상을 드높일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남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화순 폐광지역 일대가 지역재생과 미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118년 석탄의 시대를 마감하고 바이오식품산업의 새 시대를 여는 화순 폐광지역이 대한민국 지역재생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개막 D-15...시설 점검

2025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보름 앞둔 20일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이연 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영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을 찾아 성공개최를 위한 최종 시설점검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시, 세계 양궁인 대축제 막바지 준비 ‘총력’



광주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세계 양궁인들의 대축제를 앞두고 막바지 총점검에 돌입했다. 오는 9월5일 개막하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장애인)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보강부터 선수단 숙소, 시민 참여 프로그램, 친환경 정책까지 전방위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남구에 위치한 ‘광주국제양궁장’을 찾아 경기장 시설 전반을 확인하며 준비 상황을 직접 살폈다.

강 시장은 대회를 앞두고 새 단장을 마친 광주국제양궁장 경기장 시설을 비롯해 관람객 편의시설, 장애인 접근시설, 안전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노약자·외국인 관람객 등 누구나 차별 없이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광주시는 세계양궁연맹(WA)의 규정에 맞춰 경기장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姜시장, 국제양궁장 현장 방문

장애인 편의시설 등 중점 확인

선수·관람객에 최적 환경 제공

각 분야별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본선 경기가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은 사업비 389억원을 투입해 양궁장 폭을 기존 210m에서 좌우 각 10m씩 총 230m를 확장하고 선수 대기실, 장비보관실 등 다목적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 참가선수단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고 보도블럭도 새로 깔았다. 양궁경기를 중앙에서 통제 운영할 수 있는 양궁경기중앙통제본부(DOS: Directing of Shooting)를 설치했다.

결승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는 800여석 규모의 임시 관람석을 마련, 시민들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통·안전 대책도 분주히 마련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입국부터 출국까지 이동 동선을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하며 매끄러

운 대회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는 총 370여 대, 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에는 180여대의 버스가 투입되고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도 운영된다.

경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DRT 노선에 경기장을 추가했고 숙박은 9개 호텔 800여 객실을 확보, 선수단 편의를 보장한다.

대회 열기를 더할 다양한 문화행사도 준비됐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운드파크페스티벌, 송정남도맛페스티벌 등 G-페스타 행사도 함께 열리며 티켓 연계 할인으로 관광객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선수단을 위한 호스트 시티 투어도 마련돼 경기 외에도 광주의 문화와 매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제 스포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위상 제고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목표다.

강기정 시장은 “최종 시설 점검을 통해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2025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글로벌시대 맞춤형 콘텐츠 제공
국내외 현장견학 병행 실무역량 강화

주최·주관 | 광주매일신문 한국관광연구학회
후원 | 전남도 관광재단

2025 광주·전남 관광아카데미 모집 요강

- 지원자격** | 광주·전남 자치단체 관광 관련 공직자
이벤트 기획사 임직원 및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도민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모집기간** | 2025년 8월 30일까지
- 교육기간** | 2025년 9월 16일 개강
9월 24일~26일 현장학습(부산·진주·일본 대마도)
9월 30일 종강
- 강의방식** | 전문가 특강 5회 / 현장학습(2박3일)
- 강의장소** | 라마다프라자 충장호텔13층 대연회장
- 전형방법** | 서류전형_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수강료_250만원(현장 학습비 포함)
문의_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8
이메일_kjmtv@daum.net
주소_우)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강사진

- 강신결** 교수
전남대학교
전문화전문대학원장
지방자치시대, 관광으로 열거는 지역활성화 전략
- 이정실** 사장
부산관광공사
로컬관광의 중요성과 부산관광
- 안태이** 교수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호텔축제와 문화,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 석창호** 사무총장
진주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축제의 중요성과 지역축제 현황